

봉축특집  
불기 2522년



그림 · 김홍인

# 부처님 오신 날

과부가 된 직후부터 정혜사에 들어왔으니 절반은 종이나 다름없는 공양주 보살이 나를 대하는 태도는 각별했다. 친정엄마를 따라 처녀적부터 정혜사에 드나들며 굶은 일 험한 일 함깨한 세월도 있었다지만 그녀는 언제나 등기간처럼 살갑게 대했다. 그 정표로 곳곳 깊숙이 넣어 둔 시루떡이나 햇과일 혹은 말린 누룽지 같은 것을 남모르게 슬쩍슬쩍 건네주곤 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녀의 호의와 새살피는 것을 받아들일 기분이 아니었다.

그새 사위가 여독신해졌다. 막내 상좌인 수연 스님과 출가한 지 얼마 안 된 행자스님이 저녁예불을 하고 있었다. 나모라 다나다라 야야 나막알야 바로 기체... 네 명의 노 보살들이 모여 앉아서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염송하고 있었다. 국어책을 읽듯 또박 또박 다라니를 외는 행자스님의 목소리를 나이 든 보살의 청송스런 독경소리가 호위하는 듯했다. 반야심경을 끝으로 저녁예불이 끝났다. 가사 장삼을

뒤늦게 공양주보살이 법당 안에 들어왔다. 땅딸막한 체구의 그녀는 들어서자마자 절을 하기 시작했다. 절하는 속도가 무척 빨랐다. 힘이 하나도 들어 보이지 않게. 마치 춤이라도 추는 것처럼 가볍기쁜 절을 했다.

“지장보살, 지장보살...”  
공양주보살은 줄곧 지장보살을 불렀다. 입으로는 평생 과부 만든 몸습 사내라고 하던, 오래 전 죽은 남편을 저렇게 지성으로 천도하는 것이라지. 그녀의 절하는 모습을 취한 듯 바라보고 있는데 나를 불렀고 기도해주던 안정신씨 모습이 겹쳐 보였다.

유방 절개 수술을 하고 마취에서 깨어난 날 밤이었다. 나는 쪽 꺼져버린 오른쪽 가슴을 만지며, 없어, 없어졌어, 정말 없네,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저절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수술 부위의 통증보다 언제나 그 자리에 달려 있던 것이 하루아침에 뚝 떨어져 버렸다는 사실이 나를 더 아프게 했다. 눈이나 코나

났다. 긴 생머리를 찢랑거리며 몸에 착 달라붙는 카디건에 청바지를 입은 아가씨는 손잡이를 잡지 않은 채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다. 내 옆자리에 앉아 신문 보고 있던 중년남자는 힐끔힐끔 그녀의 몸매를 훑어보았다. 그녀가 사당역에서 내릴 때까지 나는 그녀의 불룩한 가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가지고 있을 때는 그것의 소중함을 모르다가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것이 더욱 돌보인다더니... 내가 언제 내 가슴을 저토록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내민 적이 있었던가. 지하철 안에서 나는 나도 모르게 오른팔로 오른쪽 가슴을 가렸다. 그럴 때마다 팔에 닿는 특수 브래지어의 딱딱한 감촉은 내 기분을 더욱 울적하게 만들었다.

절을 하고 있는데 진동으로 해놓은 휴대폰이 울렸다. 남편의 전화였다. 바람 췌 겸 정혜사에 다녀오겠다고 말했는데 이래저래 걱정이 되는 모양이었다. 나는 모든 척 전화를 받지 않았다. 휴대폰은 혼자서 말뚝거리다가 제 품에 지쳐 끊어지고 말았다. 어젯밤 남편은 잠결에 무심코 내 가슴언저리를 더듬었다. 더듬거리던 손이 무엇인가 데인 듯 움찔했다. 나는 이미 잠이 깨었지만 깊이 잠든 체했다. 남편은 벌떡 일어나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배란대로 나가 어둔 하늘을 올려다보며 오래오래 담배를 피우기도 했다. 몇 년 동안 끊었던 담배를 최근에 다시 피우기 시작한 것 같았다. 남편이 양치질을 하고 돌아와 다시 내 곁에 누울 때까지 나는 여전히 깨어나지 않은 척해야 했다.

유방암이라는 1차 진단을 받고 정밀검사에 들어가고 수술날짜를 잡을 때까지 내 마음은 생각보다 텅텅했다. 맹장을 떼어내고 자궁에 붙은 물혹을 도려내듯이 일찌감치 암세포를 없애는 거라고 스스로 위안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암세포는 이미 잘려나가고 있는데 정작 내 가슴에서 또 다른 암세포가 자라나고 있었던 것이다. 사사로운 일에도 부르르 화가 치밀어 오르고, 신경이 바늘 찌러듯 예민해서 누구라도 곁에 있으면 그 사람을 찌르고 싶어졌다. 가슴 속은 온종일 채한 듯 답답하기만 했다.

공양주보살마저 나가고 법당에는 나 혼자 남았다. 절간처럼 조용하다더니 사위는 한량없는 적막 공간이었다. 천 배를 하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팔꿈치 안쪽과 무릎 뒤쪽, 겨드랑이 등 오목한 부위마다 흥건하게 땀이 고였다. 땀 때문인지 아니면 삶과 삶이 스쳐서 그런지 수술자국이 가렵기 시작했다. 절하기를 멈추고 앉아 오른팔을 옷 위에 대고 세계 문질렀다. 그러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왼손을 옷 속에 넣고 가려운 부위를 쥐어뜯었다. 그러나 가려움증은 점점 온몸으로 퍼져갔다.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아니 땀속까지 못 견디게 가려웠다. 한 번 가렵기 시작하면 미칠 것만 같았다. 데굴데굴 구르거나 팔뚝팍팍 뛰거나 손톱을 세워 피가 나도록 긁어도 가려움은 가라앉지 않았다. 몇 시간이고 제 품에 쥐일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아, 왜 이리고 살아야 해? 그만 이 자리에 서고 꾸러져 죽어버렸으면...’

“한 쪽 가슴이 없어지니  
몸이 균형을 잃고 자꾸 다른 한쪽으로 기울어졌다.  
절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리 쉽지 않았다.”

벗다가 수연 스님이 나를 보고 반갑게 두 손을 모았다.

“잘 오셨습니다.”  
“마음이 어수선해서요. 기도를 하면 좀 나아질까 싶은데... 삼천 배는 자신이 없고... 천 배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힘이 들면... 언제든지 그만 하고 내려오세요. 기도하려면 절하는 것 말고 독경이나 참선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말수가 적고 조용조용 이야기하는 수연 스님이 걱정스러운 얼굴을 한 채 말했다.

수연 스님은 다시 한 번 내 의사를 물어 본 후 신도들과 함께 법당 밖으로 나갔다. 나는 염주를 굴리며 천 배를 하기 시작했다. 한 쪽 가슴이 없어지니 몸이 균형을 잃고 자꾸 다른 한쪽으로 기울어졌다. 절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리 쉽지 않았다. 그렇지만 오체부지를 해서라도 내 마음 속 번뇌와 두려움을 털어내고 싶었다.

다 늦은 시간에 정혜사를 찾은 것은 숨이 턱턱 막히는 집안 공기를 피할 요량이었다. 나로 인해 무겁게 가라앉은 분위기를 견딜 수 없었다. 지난가을 유방암 수술을 받은 이후, 남편뿐 아니라 친정식구들이 날 유리그릇 다루듯 했다. 무슨 문제가 생겨도 자기들끼리 쉬쉬했다. 언니, 어디 안 좋아? 아프지 않아요? 당신, 괜찮은 거야? 괜찮아요? 그런 질문들조차 내 비틀린 마음은, 내가 괜찮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었다.

입이 없어진 것만큼 비참한 기분이 들었다. 울컥울컥 울음이 밀려나왔다. 마취제를 한 대 더 맞고 비몽사몽 잠이 들었다 깼다 했다. 어느 순간 너무 아프고 쭈셔서 공포대는 내 어깨며 오른팔을 주물러주고 있는 손길에 느껴졌다. 그녀가 바로 4인 병실의 같은 수방암 환자, 안정신이었다.

안정신은 늦은 밤이면 침대마다 돌아다니면서 길어진 담요를 덮어주고 링거액이 다 들어갔는지 확인했다. 누가 시키거나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었다.

“힘든 일요... 왜 사서 하는 거예요?”  
내가 직설적으로 물었다.

“천주님의 말씀이니까... 이웃에 봉사하는 만큼 죄가 사해진다잖아. 그러면 구원 받기도 쉽고 영생할 수 있어. 명자씨도 천주님 믿어 봐. 마음에 평화가 찾아올 거야.”

안정신은 기다렸다는 듯이 내 손을 잡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내가 예수님의 길 잃은 양이며 사랑으로 보살펴줘야 할 천주님의 자녀라고 표현했다. 천주님 말씀만 믿으면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신다고 말하기도 했다. 나는 그녀의 믿음이 부러웠다. 그래서 행복하고, 그래서 즐겁다면 그 천주님을 나도 한번 믿어 볼까, 잠시 그런 생각을 했다.

절을 할 때마다 양팔이 가슴을 지그시 누르니 딱딱한 특수 브래지어가 오른팔 안쪽에 닿았다. 그것은 마치 단단한 콘크리트 덩어리 같았다. 며칠 전 지하철 안에서 본 아가씨의 붓군한 가슴이 생각

작태가 끝나는 곳부터 더 뒤를 끝낸 계단식 택자가 시작되었다. 굵은 돌맹이와 썩은 목재들, 여기저기 놓인 풍 무더기... 어찌나 을씨년스러운지 버려진 공동묘지에 서 있는 느낌이었다. 몇 년 전만 해도 세소리 높고 소나무 향기 진했는데... 코너를 돌자 정혜사가 저만치 보였다. 담장 너머로 야습푸레 불빛이 새어나오고 법당 안에 피워 놓은 향내가 맡아지는 듯싶었다. 하지만 이 속도로 걸는다면 몇 십 분이나 걸릴는지... 비스듬한 비탈길을 올려다보니 미리부터 정신이 아팠다. 수술 직후만 해도 이렇지는 않았다. 그런데 요즘 들어 겨드랑이며 사타구니, 종아리 곳곳에 무거운 추를 매달아 놓는 것처럼 몸이 무거웠다. 마음은 성큼성큼 나아가는데 정작 팔이며 발은 제자리에서 비비직할 뿐이었다.

아무래도 이상이 생긴 게 틀림없어. 재수술. 그래, 어쩌면 재수술을 받을지 모르다잖아. 주령주령 매달린 링거병, 좁고 긴 호리병 속으로 쭈욱 빨려 들어가는 듯 아팠던 마취의 순간, 어지럽고 메스거리고 오장이 뒤집히는 괴로움... 그것들을 머릿속에 떠올리자 뼈뼋뼋 식은땀이 났다. 또다시 어제 걸려온 최명숙의 전화 목소리가 귓전에서 맴돌았다.

“언니, 정신 언니가... 오늘 새벽에... 갔대요... 임파선이란 다른 장기까지 전이가 되어서... 처음부터 수술이 무리였대요. 의사가 안 되겠다고 했는 데 가족들이 사정사정하는 바람에... 수술 한 거래요. 언니,

무서워요. 정신 언니 같은 사람이 죽는데, 그런 착한 사람도 가는데...”

서울대학병원 4인 병실에서 알게 된 최명숙은 안정신의 죽음을 자기 죽음과 결부시켜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굵고 착한 사람은 천주님이 이뻐해서 남들보다 먼저 데려가신다잖아.”

그렇게 말은 했지만 나 역시 불안을 감당하기 어려웠다. 임환자인 우리들은 언제나 시한폭탄을 몸속에 넣고 사는 것 같았다. 함께 암 치료를 받던 사람이 죽었다는 건 내 몸속 시한폭탄에 빨간불이 켜진 거나 다름없었다.

절마당에 서서 법당을 향해 합장을 하는데 공양주보살이 나를 발견하고 반갑게 인사를 했다.

“아이구머니나, 누군가 했드만... 현대 소리소문도 없이 시간에 웬일이래유?”

전화 한 통 없이, 그것도 해 저를 무렵 절을 찾은 것이 맘에 걸리는 모양이었다.

“그냥, 불속, 오고 싶어서요. 노스님은... 벌써 주무시는 건 아니겠조?”

“수연스님이 노시ぬ 모시구 지방에 있는 상가집에 가셨구만유. 수가 적부담 인연 있는 보살님이 돌아가셔서... 아직 저녁 공양 안 하셨쥬?”

“떡구 왔어요. 제 격정 마시고 일 보श्य. 전 법당에 올라가 있을 게요.”

불기 2552년 부처님 오신날

## 수행정진으로 세상을 향기롭게



부산 안국선원 전경

“좋은 인연입니다”

(재)대한불교조계종

# 안국선원

선원장 수 불

사부대중일동

■ 부산 : 부산광역시 금정구 남산동 35-14번지(지하철 1호선 두실역 8번 출구)  
TEL. (051)583-0993 · 0994 / FAX. (051)583-0999

■ 서울 :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 10-3(지하철 3호선 안국역 2번 출구)  
TEL. (02)732-0772, 744-0772 / FAX. (02)744-0779

www.ahnkookzen.org